

문 41.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 되었는가?

답 41: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 되었다.

마태복음 19:17-19; 신명기 10:4; 출애굽기 31:18

추가질문 1: 십계명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추가질문 2: 십계명에는 몇개의 계명이 있는가?

추가질문 3: 십계명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추가질문 4: 십계명은 도덕 법칙의 전부인가?

### **설명:**

십계명은 모든 도덕 법칙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모든 도덕 법칙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십계명속에 모든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십계명은 당연히 10 개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열개의 계명에는 또한 순서가 정해져있다. 십계명의 순서와 배열은 매우 중요하다. 그 순서에 따라서 계명의 중요성을 따질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크게 2 등분하여 나누어 이해하는 편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그 이유는 문 42 에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제 1 계명에서 4 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해 지켜야할 계명, 그리고 제 5 계명에서 제 10 계명까지는 사람에게 지켜야할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앞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함이며 뒷 부분은 사람을 사랑함이라고 이스라엘은 배웠던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십계명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십계명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조금 새롭게 십계명을 나눌 수 있다. 십계명을 3 등분하는 것이다. 첫부분은 제 1 계명에서 3 계명까지이며, 둘째 부분은 제 4 계명이며, 셋째 부분은 제 5 계명에서 제 10 계명까지이다. 제 4 계명을 따로 보는것은 첫째 부분과 셋째부분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하는 계명이기 때문이다. 이 다리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해주기도한다. 이것은 새로운 신학적 개념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2 등분하여 볼때에 보다 십계명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십계명을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쉐마”하게(끝없이, 되풀이 하여 외치게하여 듣게함) 하셨다. 또 하나님은 십계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며 우리로 순종하는 삶을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십계명이나 또 다른 도덕의 법칙을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는 방편으로 지켜왔다. 그리고 구속주 되시는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알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의미를 외곡하여 율법적인 행위에 초점을 두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방편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가 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그들의 착각이자 자만이였다. 우리도 이들과 동일한 실수와 죄를 되풀이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설명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예수를 체험하지 않은 자들에게 마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와 같이 십계명은 거침돌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무엇이라고 언급했는가? (마 5:17)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요약 하셨나요? (막 12:28-33)

이스라엘의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눅 10:25-28)

우리는 십계명의 공부에 입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 할 수 있다. “십계명을 모르고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 아닌가 싶다. 십계명의 공부를 통해 과연 이 결론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알아보자.